제3강 언어와 존재의 그늘에서 I

(1교시)

1. 道와 언어의 문제

1) 현대 철학에서 언어/분석의 문제가 주된 관심이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
2) 왕필의 『노자』 1장 해석이 언어적 방식에서 접근
3) 도(道) 자체가 '말하다'의 뜻을 가짐
- 이론적 접근의 근거: 현대의 의식(knowledge)에서 언어가 갖는 중요성.
→ '진리란 언어적으로 포착되는 것이며, 감각적인 것은 개념적/언어적 인식에 재료를 제공할 뿐이다.'
- 도에 대한 논의의 두 가지 방향: 언어 주체와 인식대상(존재론적 차원)
- 언어적/논리적 합리성의 추구: 신분언어에서 보통언어로의 전환의 문제(민주화의 산물)

(2교시)

2. 道可道, 非常道, 名可名, 非常名

○고대 중국에서 언어의 문화적 특성

- 고대 중국에서 言이란 오늘날의 언어(language)가 아니다. (예: 天下, 江湖, 得道: 여기서 득(得)은 일정한 질서의 위계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.)

※ 주체에 따른 말의 위격의 차이
▶天下: 최고의 궁극적 하나를 상징하는 天의 개념. 오직 한 명만 쓸 수 있다.
▶江湖: 장자가 말하는 '경쟁의 세계'
▶得道: 자연의 질서인 道. 천도(天道)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음. 득도자(得道者)란, 제왕이 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.

- 명이란 이름(name)의 뜻이 아니라,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규정, 그것은 우주적 질서인 道/德 안에서 나뉘어진 개체의 몫이다.

※ 物(명분, 몫): 氣 → 形 → 物(名)

- 物의 개념(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의미): “道: 物物者, 非物.” 『장자』(“어떤 것을 그것이 되게끔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다.”)
→ 신분질서가 와해되던 상황.

※ 말의 뜻(意)를 중시한 중국인들의 가치관: **意는 ‘마음의 소리’**(intent, intention 의향, 의도). 즉, 말하는 이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. (왕필의 기본적 해석 근거)

※ **왕필**: 중국 위(魏)나라의 학자. 자는 보사(輔嗣). 산둥성 출생으로 풍부한 재능을 타고난 데다 유복한 학문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찍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. 관료인 하안(何晏) 등에 그 학식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상서랑(尙書郞)에 등용되었고, 하안과 함께 위.진(魏晉)의 현학(玄學: 老莊學)의 시조로 일컬어진다. 한(漢)나라의 상수(象數: 卦에 나타나는 형상과 변화)나 참위설(讖緯說: 예언학의 일종)을 물리치고 의(義)와 이(理)의 분석적.사변적(思辨的) 학풍을 창설하여 중국 중세의 관념론체계에 영향을 끼쳤다. 체용일원(體用一源)의, 무(無)를 본체로 하고 무위(無爲)를 그 작용으로 하는 본체론(本體論)을 전개하여 인지(人知)나 상대세계(相對世界)를 무한정으로 보는 노자(老子)의 〈무위자연(無爲自然)〉에 귀일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. 저서인 《노자주(老子註)》 《주역주(周易註)》는 육조시대(六朝時代)와 수.당에서 성행하였으며, 현존한다.